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4호 【루계 제24982호】 주제 104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해 나가 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철의 신념과 의지,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신천박물관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 섰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김기남 동지, 리제일 동지, 김여정 동지, 량철성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인민무력부 지휘성원들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 신천박물관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자주적 삶과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신천박물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박물관의 위치를 몹소 잡아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설계와 형성안으로부터 미술 작품창작과 내부전시, 구조와 안내표식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였을뿐 아니라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서있는 인민군대에 건설을 맡겨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예로운 전투명령을 심장깊이 새긴 군인건설자들은 올해 2월 26일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낮과 밤이 따로없는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방대한 건설과제를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해

결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이 일떠선 신천박물관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미제를 타승한 진승철을 계기로 신천박물관이 새로 일떠선것은 당의 명도밑에 반제반미투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과 불굴의 의지의 힘있는 표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 연혁소개실, 총서관, 전시실, 룡화방영실, 종합강의실, 전 신천군당방공호, 화약창고, 복수결의모임터 등 신천박물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이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수호전,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천만군민의 보복열기를 더해주는 반제

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본판과 2판, 외부참관지로 갈라져있던 신천박물관을 사백여터니모, 백둘어터니모, 애국자들도, 화약창고가 있는 원암리 밤나무골에 새로 건설하고 주변에 전신천군당방공호, 복수결의모임터, 휴식터, 주차장까지 꾸려놓은 결과 박물관 운영과 참관을 보다 원만히 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박물관에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이 신천 땅에서 감행한 야수적만행자료들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전시해놓음으로써

직관성과 생동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은 계급교양의 거점이고 복수심의 발원점이며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날날이 발가놓는 력사의 고발장이라고 하시면서 신천박물관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제가 제놈들이 저지른 죄행을 감추어보려고 아무리 교활하게 놀아대도 이 땅에 남긴 피의 흔적은 절대로 지울수 없다고 하시면서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

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반미대결전이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정세는 군인들과 인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특히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오늘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라고 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의 전구마다에서 나뭇기던 우리 혁명의 붉은기가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사회주의기치로 휘날리고있는것은 우리가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중시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적들은 반제반미계급의식으로 무장된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지의 힘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약탈로 배집을 늘구며 비대한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인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원수들에게 대하여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는것이 신천땅의 피의 교훈이라고, 혁명의 기본부기인 사상의식이 마비되면 혁명진지, 계급진지가 허물어지고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고 하시였다.

지금 미제의 기만선전에 넘어가 미국을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 오인하고있는것이 세계의 현실이라고 하시면서 미제의 야수성과 교활성을 우리가 고발하고 결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당과 전체 군대와 인민을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키우자는 구호를 들고 그들속에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며 이 사업을 일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반제반미계급교양을 우리 당사사업의 중요방향으로 정하고 교양방법과 형식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신천박물관과 같은 계급교양거점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며 참관조직사업과 조건보장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이동강의, 복수결의모임과 같은 여러가지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대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백두산혁명강군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진막강한 전투력을 과시함으로써 신천박물관을 하나의 계급교양대학과 같이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한심한삼을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가슴팍에 멸적의 총창을 박는 심정으로 군인건설자들과 해당 부문, 신천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인민들의 노력적위훈에 의하여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의 사상적보루가 거연히 솟아오르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가는 우리 당의 핵심, 직업적인 혁명가, 최고사령부의

붉은 선동원, 선전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을 반미대결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혁명적분봉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신천박물관건설에 동원된 전체 건설자들과 박물관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원수들에게 복수의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불길들 새차게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더욱 빛내여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시였다.

본사기자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신계군당위원회 서인국과 안해인 신계군 읍사무소 사무장 탁명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다하였으며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시였다.

백두산혈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길에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와 만복이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해당화교류사 로동자 홍명숙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성숙동지의 통상을 더 밝게 모시는 사업을 비롯하여 대성산혁명명사용관리에 순결한 향심을 바치시였다.

트산군 시범고급중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지난 10년간 수종이 좋은 8 900여그루의 나무와 꽃관목들, 1만 5 200여점의

판리도구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대성산혁명명사용에 보내주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시였다.

백두산3대장군을 영인토록 높이 받들고갈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고 서성구역종합식당 로동자 신정향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작봉마루에 올라 대성산혁명명사용을 더 잘 꾸리는데 전심을 바치시였다.

철새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헌신하고있는 평안남도검찰소 책임검사 최창국은 10여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백송혁명사적지 관리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하시였다.

사리원시 구천2동 30인민반 특유영예군인 박명금은 백두산선군정년발전조선청에 찾아가 화신직정지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후방물자도 안겨주면서 청년동력대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쟁책유위헌으로 적극 고무하시였다.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조국의 만년제부로

일떠서는 발전조선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바칠 일념에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윤송이는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자재와 물자를 백양전구에 보내시였다.

묘향지도국 부원 정향미는 청년들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워 줄데 대한 믿음을 깊이 새겨안고 건설장으로 달려가 일도 함께 하며 지원사업도 잘하여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오봉신도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전기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해갈 애국의 마음안고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원들 물심방면으로 도와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시는 감사편지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친애반대높이 우러모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갈 결의에 넘쳐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5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시였다.

로씨야신문 《나호드젠스키 라보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 김정은동지전시관 소식을 전하시였다.

네 팔 신문 《아르판》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애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게재하시였다. 에스파냐의 에페통신, 미국의 신문 《앨 뉴에보 헤랄드》와 VOA방송, 세네갈신문 《레포블레르》,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쉴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3차 대사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도하시였다.

로씨야, 라오스, 네 팔, 도이쉴란드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해방 70돐경축 로모니아 전국준비위원회가 13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모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콘스탄틴 로마부가, 부위원장으로는 로모니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바셀메 머겨부수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경축

연고모사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뜻있는 8.15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해방 70돐경축 앙골라 준비위원회가 13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인 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앙골라 위원회 위원장대리 엘리이스 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이쉴란드공산당 위원장 토르스텐 쇠비츠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고기배들이 련속 먼바다어장으로 진출

동해의 각지 수산사업소들에서

22일 동해의 수심적 고기배들이 또다시 먼바다어장으로 향하시였다.

이날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로모니아에 달려온 인민들이 먼바다를 떠나는 용맹한 바다의 정복자들을 뜨겁게 반겨주었다.

6월말에 먼바다로 떠난 원양선단에 이어 이번엔 출항한 어선단은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역에서 물고기잡이를 하게 된다. 수천근의 가공모선과 수심적의 고기배들로 무어진 어선단에는 수산성과 신로원양수산면합기업소, 함경남도수산관리국 일군들과 양화수산업소의 기동예술선동원들도 함께 타고 있다. 먼바다에서 어로공들이 발견없이 작업할수 있는 물질문화조건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물생산을 늘이자면 먼바다물고기잡이를 잘하여야 합니다.》

어항목포에 의하면 낚지를 비롯한 주요어종들의 어장이 동해의 먼바다에 형성되고있다. 수산성에서는 가까운바다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어획고를 높이면서 먼바다에서의 대량한 집안어로를 조직하기 위한 면밀한 작전을 펼쳐왔다.

수산성 일군들이 각지에 내려가 집안어로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투쟁에 대담을 불리우기였다. 일정별목표가 높이 세워지고는 나라에서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원치게 할수 있도록 배려주는 사업, 함대설비의 현대화 등 과학적인 어로조건을 마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

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특히 락원수산사업소에서는 먼바다에 나가기에 앞서 고기배들의 물고기잡이경험을 교환하고 있을수 있는 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어로공들의 지상모의훈련을 조직하였다.

수산성에서는 먼바다에서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번 집안어로를 조직하면서 어장을 차지한 고기배들이 잠은 물고기들 가공모선에서 처리하여 작업시간을 늘이고 연유소비를 대폭 낮출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전을 펴려왔다.

먼바다로 떠난 어선단의 고기배들은 수산성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과학적인 어항목포에 기초하여 집중과 분산의 방법으로 낚지와 공치, 밀치를 위주로 잡게 된다.

본사기자 전성삼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항하혁명사적지 련일 참관

【장강 7월 22일밤 조선중앙통신】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수많은 참관자들이 항하혁명사적지를 향일 참관하였다.

7월에 들어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참관자들의 수는 하루 평균 2 000여명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혁명생애의 전기간 혁명투쟁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쏟으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의 피어린 판가리 싸움과 준엄한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해오시였다.》

항하혁명사적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조직하시여 전당, 전군, 전민을 전쟁승리로 불려일으키신 혁명사적이 깃들여 있다.

참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9(1950)년 12월에 계신던 수수산 집을 찾았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이 농가에서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의 보고를 준비하시여 밤을 지새우신 로고를 되새기며 그들은 전원회의장소와 담화하신 집, 샘물머리를 비롯한 여러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회덕골의 회의장에 들어선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세와 담판과업》이라는

력사적인 보고와 결론을 하시여 6개월간의 조국해방전쟁정형을 총화분석하시고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과업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천리헤안의 애지를 지니신 철새위인에 대한 헌없는 그리움으로 가슴끓어오름을 금치 못하시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승려한 조국의 배일을 내다보시여 과학자,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시여 전후복구건설의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창작방향을 밝혀주시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문제들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 사적자표들은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음을 깊이 절감하게 하시였다.

참관자들은 어머니수령님께서

면길을 떠나는 전사의 건강을 녀려하시여 자신의 외투를 입혀 주시고 전선을 탄원하여 달려온 류학생들을 다시 배움터로 보내 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며 철새위인의 숭고한 품포와 고매한 덕망을 다시금 가슴속에 새겨안았다.

본사기자

1950년대 청년들의 그 정신, 그 용맹으로 청년강국의 위용 높이 떨치자

백두산 선군청년돌격대에 서

조국과 인민이 우리를 지켜본다

조선청년들의 혁명적 품성과 기개가 만천하에 힘있게 파시 되고있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건설장에서도 하나의 빛나는 위훈이 창조되었다.

황해북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7월 12일 안제리산의 3개 봉로에 대한 공크리트타입과제를 한달반이상 앞당겨 끝내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에 대한 헌신적투쟁정신이 높고 동지적사상과 의리가 깊으며 혁명적열정을 풍부히 여기고 정의감이 강합니다.」

언제일종의 그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 련단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위훈도 자랑스럽다. 하지만 만연해보다 더 굳고 서두수의 물보다도 더 맑고 깨끗한 그들의 정신세계야말로 천만금에도 비치지 못할 귀중한것이다.

마음의 언제를 먼저 쌓자

그 어떤 고난도 파갈려 꿋꿋하며 신념의 산악마당 언제를 쌓아가는 나날 련단지휘관들은 청년돌격대원들에게 1950년대 청년들의 조국수호정신을 억척같이 심어주는데 첫걸음을 힘써냈다.

황해북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담을 받아안고 련단이 1호연계건설장투에 진입하였을 때였다. 련단지휘관들은 물론이고 구대원들에게도 이런 수려구조물 건설은 처음이었다. 더우기 련단이 많은 연계파안은 우안파는 달리 혼합장파 타입장소의 높이차가 10여m나 되는것으로 하여 공사조건이 매우 불리하였다. 당장은 혼합물수송방법도 서지 않은 조건에서 공사를 제기일내에 끝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모두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당조직의 지시밑에 련단장 조영, 정치부장 김철수동무들은 무엇보다먼저 돌격대원들의 마음속에 충정의 불길, 결사관철의 불길을 지펴올리기로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엄격한 백두대지에 그 어떤 조건타락도 없이 당을 받들어온 우리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1, 2호 발전소완공의 작전도를 펼쳐주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의 결심은 곧 신념의 실현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시사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바로 우리 백두청년들의 어깨에 지워져있습니다.」 련단지휘관들의 불같은 호소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붉은 피가 펴릴

우리가, 그 부름과 함께 고향으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백두대지에 청춘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곳 련단의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동지와 집단에 대한 애착은 남다른것이였다. 지난 7월초 혁신자로 소문난

이 가리라는 결심을 굳히며 그는 이를 악물고 병원으로 향하였다. 병원까지 1km 남짓한 거리를 무려 6번이나 쉬면서 끝끝내 리소연동무를 찾아갔다. 온통 입술이 터갈라지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자기의 수혈결과며 병상태를 세세히 물어보는 그를 바라보며 리소연동무는 고향에 있는 친연년의 정을 느꼈다.

어찌 이럴뿐이랴. 동무의 입맛을 돌려세우기 위해 작업의 철학에 차가운 물속에 주저없이 뛰여온 4세대대원 홍광일동무며 나이런 대원을 친형육의 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준 2세대 참모장 정금혁동무, 자기는 온몸을 적시면서 4세대대원에 자기의 비운까지 입혀준 4세대 1소대장 홍광철동무...

한대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더기 위해 황북 600여리의 길을 다녀왔던 1세대장 조진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동지를 바로 나로 생각하고 언제나 동지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 백두청춘들,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의 구호를 위하여 간직하고 있는 그들은 백두대지의 천지개벽을 안아주기 위해 순간도 쉬임없이 투쟁하고 전진하고있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맹세의 편지를 올리고 지난 4월초 수많은 사람들의 환송속에 《리소북청년결사대》라는 글방이 새겨진 붉은 깃발을 펴며 휘날리며 백두전역으로 달려온 평안남도려단 리소북청년결사대의 51명 청년돌격대원들, 당시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평양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들에게 있어서 백두의 대지연파의 싸움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리소북청년들의 고귀한 그념으로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버리며 그들은 청년강국의 어떤 주인공들도 성장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을 굳게 믿고 청년들이 강성국가문패를 남김없이 하려는것은 당중앙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결사대에 앞장섰던 첫 전투명령은 수심리 떨어진 산간에 올라 공사용물수송을 끌어내려는것이였다. 눈썹이 시작된 5월 중순의 산속이리 도중도중 발목까지 찌르는 진랑이 있어 장화까지도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다. 남성돌격대원들도 물나물 비축물 끌어기때문에 한달에 10여m 정도밖에 전진할수가 없었다. 그달에 정치지도원 문명성 동무가 나섰다.

「동무들, 우리가 어떤 맹세를 다지고 여기로 왔습니까,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물도

150일 강행군청년결사대의 대원들

조신청년의 불굴의 기상과 정신력을 힘있게 파시하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백두청춘들속에는 150일강행군청년결사대의 청년들도 있다.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서 온 세상에 자랑될 치며 1호발전소건설장의 어렵고 힘든 초상마다에서 위훈을 세워가고있는 청년결사대원들의 영웅적투쟁은 대오안에 공기처럼 흐르고있는 혁명적투쟁에와 집단주의의 고상한 미풍과 때때로 생각할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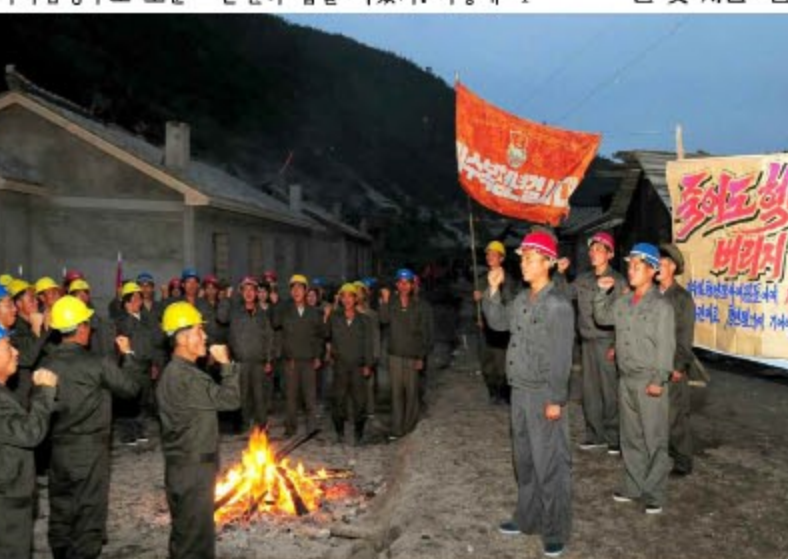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용모는 매우 훌륭합니다.」 150일강행군청년결사대원들모두가 집단의 명예속에서 자신의 행보를 찾는 승천의 정신세계를 지닌 청년들이다.

지난 6월 25일 새벽이였다. 야간타입전투를 진행하던 2세대대원 리은철동무는 뜻밖에도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였다. 밤을 새우고있었다. 중대원들의 넘어진 작업복이며 신발들을 땀고있었던것이였다. 온종일 작업장에서 동무들과 같이 땀을 흘리고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도 동지들을 위하여 헌신한 박용희동무의 소행은 대원들을 감동시켰으며 대오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미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하였다. 결사대원들속에서 꽃피는 집단주의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무엇이 하나 생겨도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며 대오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1중대의 남은 정, 김용관, 리혜성, 로영철동무들과 앞으로는 대원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기울인 2중대의 김명성, 김경미, 김은옥, 리성혁 동무들...

청년결사대의 전투력은 나날이 꽃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더불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백두대지의 보람찬 건설장에서 우리의 백두청춘들은 이렇게 혁명적 투쟁에와 집단주의를 체질화한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일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것이였다.

일단, 4일밤이 흘렀다. 결사대원들은 끝내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말려진 전투명령을 수행하고 야말았다. 투쟁과 위훈속에 흘러온 100여일간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결사대대장 리혁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을 믿고 당장전 일흔흔까지의 작전도를 펼쳐주시고 그 숭고한 뜻을 순간순간 체현하고있습니다. 결코 교정에서는 배울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곳 선군청년대에 생생함을 통하여 뼈저리게 새기고있습니다.」



결사대의 처녀회장소로 소문난 박미성동무와 리장향, 김경심동무들을 비롯한 처녀돌격대원들은 석속위계용운촌에서 전투에 떨쳐나섰다.

삶의 순간순간을 빛나게

아침저녁 소원은 하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발전소건설장에서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평양시립단원정철소대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명명하도록 하여주시신 원정철소대, 혁명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평범한 청년돌격대원의 삶을 영연히 빛내어주시는 하늘같은 믿음을 순간도 잊지 않고 소대원들은 하루의 첫 인파를 이렇게 총정파 보답의 발자욱으로 떼고있다.

청년강국의 영웅시대가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건설장에는 돌격대원들 누구나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청년기공예술팀 대원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이후 선동대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화신적경계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십자연대기념비에 형성된 전격의 나팔수처럼 백두전역에 비야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말들이 되자, 이런 불같은 맹세를 안고 대장 박헌혁동무는 하나하나의 종

육탄영웅과 나

평안남도려단 리소북청년결사대원들

간에 200m²의 면적에 돌을 다시 입힌다는것은 불가능하다며 손뼉을 쳤고있었다. 하지만 결사대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김원철, 장영성, 주영일동무들이 제대병사의 입술에서 발취하며 기술적으로 어려운 돌쌓기 작업을 앞장서고 있었다. 모서리가 예민한 돌을 수없이 다루느라 장갑에 골 구멍이 났고 손끝에서 피가 스르르 흐르던 그들은 작업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았다. 결사대의 처녀회장소로 소문

난 박미성동무와 리장향, 김경심동무들을 비롯한 처녀돌격대원들은 석속위계용운촌에서 전투에 떨쳐나섰다. 그즈음 예없이 쏟아지는 소나 비로 하여 누구나 온몸은 젖어 있었고 밤이면 북방의 찬 날씨가 그들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섰다. 결사대원들은 그리 멀지 않은 속으로 오가는 시간마저 이카와 스르르 한창에서 옥잠을 찢었고 쏟아지는 비속에서도 혼연히 밤을 먹었다. 이렇게 4

총련상공회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은종인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부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상공회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원들은 이 역사적 장면에 깃들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들

쿠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한 영화감상회 진행

쿠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한 영화감상회가 22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원들은 이 역사적 장면에 깃들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들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위원을 파우명으로서 삼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오손없이 계속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나게 이어가고계신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밖에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조국해방전쟁사적들을 참관하였다.

세계적난문제로 되고있는

만성 호흡기 감염증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질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 자신이 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해어질수없는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는 결핵은 결핵균의 의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호흡기감염증이다. 인류는 오랜 세월을 거쳐 결핵균의 미생물학적분해와 결핵의 발병기전을 밝히고 예방과 진단, 치료방법을 세울 수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었다. 그러나 오늘 결핵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의연히 제기되고있다.

1990년대초에 결핵환자가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는 1993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나라들에서 결핵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자외에 의학의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결핵균에 감염되어있으며 2013년 한해동안만 도 세계적으로 9백만명의 결핵

독자의 편지

저는 조선직직자총합련원 구장파 의사 김주태동무와 그의 아내인 리봉녀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고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20년전인 어느날 새집을 짓는 행차에서 2인민병원에 다니던 그의 아내 리봉녀동무가 찾아왔습니다. 의사부부인 그들은 제가 전쟁로병을 앓고 찾아왔다고 하면

양어에서 주먹머리 평화파이기술

당의 은총속에 마련된 양어기지에서 물고기생산을 늘여 인민들이 먹을 보게 하려면 양어 분야의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내자는 기풍을 세워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양어에서 먹이는 3대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훌륭히 풀어야 물고기생산에서 리를 보장할수 있으며 증체율을 높여 맛좋은 양어기술은 물고기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 평화파이기술은 과학적인 지료에 따라 잘 혼합된 배합사료를 일정한 크기의 양막으로 성형할 때 그속에 미세한 기포를 형성해두는 기술을 받아들여 생산한것이였다. 그 리의는 간단하며 기존방법으로 생산한 배합파이에 비해 뜰과 풍은 흡착력을 가진다. 평화파이기술이 없는데 뿌려주면 물고기들이 쉽게 발정하게 되어 먹이조건이 개선된다. 일정한 시간 물속에 떠있어도

수질을 떨치지 않고 흡착력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있어 물고기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극소량 성분인 산소를 피복시키는데도 유리하다. 양어에서 잘 부스러지지 않으면서 물고기들의 소화율에 지장을 주지 않는 풍의 우점을 가지고있다. 양어분야에서 평화파이기술 도입하는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기술을 개발하여 물고기생산을 늘이고자 한다. 이 배합파이를 주는 과정에 나타나는 수질오염도 적어 좋은 배합파이 기술이 보강되니 그만큼 물고기들의 증체율도 높아졌다. 전국도처에 꾸러진 양어장들에서 이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물고기들이 쉽게 발정하게 되어 먹이조건이 개선된다. 일정한 시간 물속에 떠있어도

전쟁로병을 위한 뜨거운 진정

해주었습니다. 고려의 학을 전공한 리봉녀동무는 저의 병을 완치시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구장과 의사로 일하는 그의 남편 김주태동무도 제가 나이를 이바해내며 애를 먹었다는 것을 알고는 성의껏 도와나섰고 은 가족의 구장직을 위해 성의

